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사순절 제3주 】

| | |
|------------|--------------|
| 전 주 | 반주자 |
|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 경배의 찬송 | 20. 다 감사 드리세 |
| ♠ 공동기도 | 다함께 |

참 좋으신 하나님, 마음의 불모지에 봄의 향기를 머금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우리의 가슴으로 걸어오시는 주님, 메마른 우리 가슴에 사랑의 움을 틔워주십시오. 헛된 일들에 매여 전전긍긍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울과 불안과 헛된 망상을 떨쳐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사랑의 신명에 지핀 사람들이 생명의 춤을 너울너울 추며 살게 해주십시오.

갓 피어난 나무의 우듬지에 내리는 환한 햇살처럼 주님의 은총의 날개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날마다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앞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
|------------|----------------------|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 사58:11 |
| ♠ 교 독 문 | 18. 시편 67 편 |
|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 대표기도 | I. 문영혜 집사 II. 이용한 장로 |
| 사도신경 | 다함께 |
| 응 답 송 | 성가대 |
| 찬 송 | 189.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
| 성경봉독 | I. 렘 13:1-11 |
| | II. 렘 17:9-13 |
| 찬 양 | 김근종 권사 |
| 말 씬 | I. 그대로 두지 말라 |
| | II. 마음의 자취를 따라 |
| | 김재흥 목사 |
| | 김기석 목사 |

| | |
|--------------------------------------|-----|
|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380. 내 마음 주께 드리니 | 다함께 |
| 헌금봉헌 | 다함께 |
|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함께 |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속절없이 지나가 버릴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택하는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다 함 께 : 주님,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늘 주님의 음성예 예민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을 바치오니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 | |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말씀 : 김재흥 목사 | 말씀 : 김재흥 목사 |
| 기도 : 김필순 권사/최종원 권사(21) | 기도 : 정영선 집사/백혜숙 권사(24) |

| | | | |
|-------------------------|------------------|------------------|---------------|
| 다음 주 예 배 위 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 임보람 선생 윤석철 장로 | 인도자 유경순 집사 |

| | | | | | | | |
|-----------|------|-----|-----|-----|-----|-----|-----|
| 3월 | 영접위원 | 구성실 | 방문성 | 홍순구 | 최철수 | 이소순 | 고숙이 |
| | 헌금위원 | 조병무 | 이인웅 | 김인걸 | 유영남 | 임정자 | 안정숙 |

황사와 부활

올해도 어김없이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찾아 왔다. 노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 흙먼지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 닥쳤다. 이번 황사는 미세 먼지 농도가 평소의 20배로 사상 최고 수치라고 한다. 미세 먼지 경보제를 실시하는 미국의 경우, 미세 먼지의 하루 평균농도가 m³당 350 μ g을 넘으면 ‘위급’ 경보를 내려 모든 사람의 바깥 활동을 금지하고, 특히 호흡기나 심장질환자, 노인과 아이들은 반드시 실내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상 최악의 황사바람이 전국을 강타한 지난달 21일의 경우, 최고치를 보인 서울 한남동에서는 m³당 2046 μ g의 농도가 계측되었다니 그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가시거리가 크게 떨어져 자동차 추돌사고가 줄을 이었다. 서울-경기-대전-충북 등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임시휴교에 들어가기도 했다. 떡볶이나 어묵 등을 파는 길거리 노점상들도 울상을 지으며 임시휴업을 해야 했다. 그리고 보니 해마다 이맘때면 눈이 쓰리고 목이 따끔거리려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나도 황사의 피해자인 셈이다.

모 방송국 기상캐스터가 황사보도를 하던 중 “이웃도 잘 만나고 볼 일”이라며 비아냥거리던 것이 생각난다. 한편으로는 수궁이 가기도 하지만, 경솔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웃을 잘못 만난 탓에 내가 불편하다는 논리는 철저한 이기심의 표현으로서, 결국 나 역시 이웃에게 별로 좋은 이웃 노릇을 못하고 있음을 반증할 뿐이다.

이번 황사가 극심한 까닭은 지난 겨울 동안 중국 대륙의 신장자치구·네이멍구(내몽고)·몽골 지역 강설량이 예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온건조한 찬바람(편서풍)이 몰아닥쳐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이고 근시안적인 이유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적으로 점차 온난화 되어 가는 기후변화와, 지역적으로 이미 50년대 대약진운동 시기로부터 농지개간을 위해 숲과 풀밭을 밀어버린 무분별한 산림 개발에 있다고 본다. 누군가 경고하지 않았던가? 숲이 사라지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전문가들은 중국 국토의 27%가량이 이미 사막화되었으며, 해마다 서울 넓이의 네 배가 넘는 2,460km²씩 사막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몽골의 경우에는 국토의 90%가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번 황사로 그들 지역의 1억 3천만 인구와 28만 5천ha의 농경지, 그리고 236만ha의 초지가 엄청난 재난을 당했다. 우

리의 불편과 피해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보면 환경오염은 역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희생자로 만드는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조직인 ‘지구 프런티어 연구시스템’에 따르면 황사에는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연간 3억 톤에 이르는 황사는 알칼리성 칼슘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산성비를 중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서해(황해)에 내려앉는 황사는 식물플랑크톤을 다량 증식시켜 지구온난화를 일부 막아준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단순하게 넘길 바가 못 된다. 과거의 황사와 달리, 요즘 황사에는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시개발에 열심인 베이징을 위시하여 중국 동부 공업지대의 오염물질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중국 정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하여 국토조림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지만, 어디 나무를 심는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던가? 효과를 보려면 오랜 인내가 필요하리라.

국경 없이 넘나드는 공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역시 국경을 넘어 연대하는 길밖에 없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진정한 변혁은 아래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한-일 양국의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세계의 시선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쏠리고 있는 이 마당에 황사문제를 범시민 운동, 범문화운동까지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복음서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개념과 범위를 새롭게 재정의하고 넓히도록 도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따지기보다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를 자문하게 만드는 데 그 비유의 매력이 있다. 참된 이웃이 되려면 지역적, 인종적, 계층적, 성적 장벽을 허물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말 못하는 자연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사실상 자연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가 아닌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에게 되물으신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살해당한 나무와 풀과 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고 있는냐고. 아! 부활을 기다리는 건 인간만이 아니다.

(이 글은 2002년에 구함미정 박사가 《새하늘과 새땅》이라는 잡지에 쓴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파괴의 성향

네가 무엇을 파괴할 때 위대한 영(The Great Spirit)은
네 가슴에 그늘을 드리운다
-조 프라이데이-

우리는 파괴하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무엇을 파괴할 때마다 우리는 균형을 무너뜨린다. 우리는 자신의 균형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균형까지 무너뜨린다.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우리는 그 때문에 화가 난다. 화가 나는 건 좋다. 그가 무슨 짓을 했든, 그것이 무엇을 파괴하는 짓이라 해도,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우리를 폭발시키는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 않고 그냥 우리의 일을 하면서 내버려둘 수가 있다. 꼭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한 대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을 큰소리로 꾸짖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뚝뚝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한다. 그럴 경우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남을 책(責)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을 하되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우리 자신을 포함하여-을 치유해 주어야 한다. 기록(記錄)을 바르게 남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홍 | | | | | | |
| 원로목사 : 박정오 | 소속목사 : 한인철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 | | | |
| 원로장로 : 방현복 | 김춘려 | 전영규 | 김성한 | | | | |
| 장 로 : 윤정덕 | 강인식 | 김철수 | 조병무 | 한완식 | 구성실 | 이용한 | 윤석철 |
| 성가대장 : 이용한 | 지휘 : 윤주원 | 반주 : 최윤선 | 안홍숙 | 한선희 | 김수진 | | |
| 관 리 인 : 노용래 | 운전기사 : 오진훈 | 도서관 | 관 장 : 이순정 | | | | |

◇ 한글 영수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구명자 이한림 김명희 임보람 김정길 최숙화 김순복
전영웅 배상순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이은숙 윤미경 고사일 최영선
박두석 이건화 박재실 강인식 김정숙

월정헌금:

조항범 오현정 백요현 김홍기 김명순 박석희 조항미 정두리 송의섭
이경남 조동길 배부례 박상규

감사헌금:

이인섭 하진솔 권 순 윤정화 김철수 유영남 김용길 최영혜 김흥순
전찬용 강혜실 신윤정 김지호 박순성 정은영 김재흥 최희영 박숙화
윤 윤 서정순 영혜영 김지윤 무명

생일감사헌금: 정완수 김혜진 윤수진 이지훈 신영재

◇ 속 회 보고 ◇

| 속 명 | 인 도 자 | 속 장 | 모 인 곳 | 다음 장소 |
|---------|-------|-------|-------|-------|
| 예루살렘 | 유 영 남 | 차 혜 심 | 조 순 덕 | 하 재 두 |
| 베들레헴 | 윤 정 덕 | 정 경 례 | 노 순 옥 | 김 영 한 |
| 안 디 옥 | 임 정 자 | 곽 권 희 | 정 진 경 | 임 정 자 |
| 가 나 안 | 문 영 혜 | 박 경 선 | 이 봉 배 | 김 명 순 |
| 갈 린 리 | 조 병 주 | 박 애 순 | 진 정 숙 | 문 금 석 |
| 베 다 니 | 임 창 선 | 박 흥 재 | 김 필 순 | 임 창 선 |
| 시 온 | 박 효 선 | 허 정 윤 | 허 정 윤 | 이 인 섭 |
| 엠 마 오 | 최 숙 화 | 권 미 정 | 오 성 희 | 권 미 정 |
| 에 베 소 | 이 순 정 | 한 선 희 | 이 순 정 | 오 복 순 |
| 빌 린 보 | 최 종 원 | 이 형 숙 | 이 형 숙 | 최 종 원 |
| 가 버 나 움 | 구 성 실 | 안 흥 숙 | 안 흥 숙 | 구 명 자 |
| 나 사 렷 | 백 혜 숙 | 정 옥 영 | 정 옥 영 | 정 영 선 |
| 갈 라 디 아 | 송 양 진 | 유 경 순 | 안 경 숙 | 송 양 진 |
| 고 린 도 | 이 영 란 | 이 증 자 | 배 삼 순 | 방 극 숙 |
| 다 메 섹 | 박 혜 경 | 최 영 혜 | 조 항 미 | 최 영 혜 |
| 두 란 노 | 안 종 일 | 정 현 주 | 교 회 | 교 회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의 월례회가 있습니다.
2. **새벽기도회** :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시간을 재조정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3. **성경학당** : 지난 9일(화)부터 오전(10:30)과 저녁반(7:30) 개강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은 다 오십시오.
4. **세례신청** : 오는 부활절에 세례와 입교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서를 내시고, 21일부터 시작하는 예비교육에 참석하십시오.
5. **담임목사** : 오늘(14일) 저녁부터 17일(수) 저녁까지 춘천에 있는 성암교회(허태수목사 담임)에서 신앙집회를 인도합니다.
6. **신앙실천** : 사순절 달력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쓰십시오.

*헌화 - 한상익 정영선 (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아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치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년회 | 16:0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